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안전에서 시작

지산리조트 오미근 팀장

평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고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을이 떨어지고 간 낙엽들이 힘없이 부서져 바람이 이끄는 곳으로 사라져 간다. 새하얀 첫눈이 내리길 기다리는 연인들처럼 겨울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한다. 눈 덮인 설원을 가르며 스키어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유난히도 지루한 계절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계절일 것이다. 지난겨울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고요함과 숲 내음이 짙은 지산리조트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며 오미근팀장을 만나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렸다.



서비스업에서의 안전사고,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안전에 대해 너무 소홀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지 IC를 빠져 나오자 지산리조트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 멀지 않아 예정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하게 된 나는 잠시 차에서 내려, 초겨울 차갑지만 시원한 공기를 폐 속 가득 채웠다. 지산리조트에 도착하자 오미근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얀 안전모를 쓰고 줄곧 밖에서 분주히 일을 보았는지 얼굴은 추위로 울긋불긋하다. 올해로 52세가 되는 오미근팀장,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에서 자란 토박이다. 1983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진학한 대학에서 그는 전기 및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였다. 그 이듬해 안전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하면서 부터이다. 민속촌 시설관리팀에서 3년의 경험을 쌓고 지금의 지산리조트로 전직한 것이 1992년, 골프장 공사 시작과 함께 1997년 스키장 준공 및 콘도 개장, 현재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가 있기까지 그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처음 입사할 당시, 서비스업중에서의 산업재해 사고가 거의 미미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을 소홀히 할 때였다. 그러던 1996년 어느 날, 그로 하여금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산리조트는 골프장과 스키장을 합한 면적이 100만평에 이르며 험한 비탈이나 오르막이 많아 걸어 다니는 것은 무리이다. 이동을 위해 오토바이를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업무를 위해 이동 중이던 한 근로자의 오토바이가 고객 차량과 충돌하면서 근로자가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안전모만 썼더라도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는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된 후였다. 서비스업중에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날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오미근팀장은 조금 일찍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았다면 하는 아쉬움과 가장을 잃은 가족들의 아픔에 가슴이 저며 왔다고 한다. 그 이후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 일을 자진하여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설팀장과 함께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그는 전문적으로 안전을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점점 중요시 되어가는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독립부서로 안전업무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한다. 스키장 개장과 함께 늘어난 업무와 소홀히 할 수 없는 고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속소에 묵으며 지산의 밤과 낮을 지키는 그의 열정으로 이곳을 찾는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날 수 있길 기원해 본다. 

〈임재근 기자〉